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5.16(월) ~ 2022.5.20(금)

제공일시 2022 05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5.16(월) ~ 2022.5.20(금)

제공일시 2022 05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유럽, 중국 전기차 산업 견제 위해 새 표준 만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표준에 나서기로 합의함
- 미국과 EU는 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아예 표준 설립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제시. 이는 미국과 EU가 앞으로 국제시장 경제 영역 바깥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로 예상됨
- 미국과 EU의 새로운 표준 제정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5G, 6G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을 더욱 결집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함

(조선비즈 2022.05.17.) 황민규 기자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5/17/1N0C0F462E771718E2B10403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utm_campaign=bc

2. EU, 재생에너지 항목서 '산림 바이오매스' 제외한다

- 유럽연합(EU)이 목재·원목 등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제동을 걸어 이목을 끌고 있음
- 17일(현지시각),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에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지침(RED II) 개정안을 채택. 오는 9월 유럽의회 총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사회를 거쳐 각 회원국 국내법에 반영됨
- 그동안 유럽의 바이오매스 정책 기준을 참고해 온 한국도 바이오매스 활용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됨

(더나은미래 2022.05.19.) 김수연 기자
<https://thenaunmire.com/issue/5646>

3. “美, 전기차 수요 늘어 내년부터 단기적 이차전지 공급 부족”

- 미국의 전기차 활성화 정책으로 이차전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산 이차전지 셀의 단기 공급부족이 예상됨
- 19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내 전기차용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수요량은 181GWh인 반면, 공급량은 143GWh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전망이다
- 주요 이차전지 업체들이 미국 내 이차전지 공장 신설을 진행 중이지만, 급격한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을 겪을 것이라 분석 결과가 나왔음

(아시아경제 2022.05.19.) 오현길 기자
<http://news.ajk.co.kr/view?article=2022051904330395>

1. 尹 정부, 美 주도 IPEF 가입 공식화... 中 경제보복 재현 우려하는 산업계

-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회원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포함된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됨
- IPEF가 ‘중국 견제’의 성격을 띠는 만큼, 중국 입장으로선 한국의 IPEF 참여가 ‘반중 노선 동참’으로 해석되기에 우리 외교·통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옴
- 중국의 반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 기조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며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중국과의 통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뉴스1 2022.05.18.) 나혜윤 기자
<https://www.news1.co.kr/articles/7494033>

(한겨레 2022.05.18.) 김미나 기자
https://www.han.co.kr/arts/politics_general/20220517.html

2. 尹 정부, ‘탈플라스틱 국제협약’ 선제 대비한다

- 윤석열 정부가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선제 대비할 방침.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을 꼽고,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을 밝힘
- 이에 환경부는 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 논의·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포럼을 19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과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힘. 또 선진국을 넘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한국제적 흐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강조함

(전자신문 2022.05.19.) 이준희 기자
<https://www.etnews.com/20220509110>

(뉴스1 2022.05.19.) 나혜윤 기자
<https://www.news1.co.kr/articles/7494038>

3. 지자체별 ‘기후예산’ 추진 시동... ‘기후변화’ 대응 성공하려면

- 국내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인 기후예산 추진이 활발해짐
- 기후예산제를 전격 도입한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 대전 등도 지자체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녹색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후예산과 대응방식은 차후 혼란을 부추길 수 있고, 정책 실효성도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중앙정부의 표준대응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옴
-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후예산 관련 보고서에서 “기후예산이 유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중앙정부의 공통된 기후예산 활용모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함

(이넷뉴스 2022.05.17.) 문경아 기자
<http://www.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oid=288>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5.16(월) ~ 2022.5.20(금)

제공일시 2022 05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유럽연합, 청정 경제 촉진위한 '리파워EU(REPowerEU)' 최종 발표

- 유럽집행위원회(EC)는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녹색경제 전환을 촉진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을 18일(현지시간) 최종 확정
- EC가 리파워EU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 3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 당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 유럽연합(EU)은 미국 등의 서방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논의를 본격화. 그런데 경제 제재 계획 가운데 '화석연료'가 EU의 발목을 잡았음. 가스 소비량의 9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EU는 이 중 45%가 러시아산이고, 원유는 25%, 석탄은 45%로 러시아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
- 사실, 외교적 이유 등으로 걸핏하면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 중단 협박을 받아온 EU는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 나가겠다는 단계적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 더불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2019년 공표한 EU는 청정 경제 전환을 위해 탄소집약도가 높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러시아산 화석연료 사용 감축도 자연스럽게 포함
- 그러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으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 필요성이 유럽 사회에 강조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 이에 지난 3월, EU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물량의 3분의 2를 줄이고, 20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내용의 'REPower EU'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 이에 따라, EC 지난해 7월 발표한 핏포55(Fit for 55)*를 토대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독립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강화한 '리파워EU'를 최종 확정해 18일 발표하게 된 것. 확정된 리파워EU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지원 다각화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스마트 투자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
- (에너지 절약) EU는 에너지 절약이 현재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고 수입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데 있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인 방법이라고 봄. 따라서 유럽 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요소와 영역을 찾아 공격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방침. 이를 위해, 기존 핏포55에서 제시된 구속력 있는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9%에서 13% 인상하겠다고 제시.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의 방법으로 건물 단열재 사용 확대, 고효율 난방 시스템 및 가전제품 사용을 활성화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에너지원 다각화)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해 천연가스, LNG, 수소 등을 구입할 계획. 특히, 회원국 개별이 아닌 EU 전체가 공동 구매해야 에너지원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EU 안에 '에너지 구매 플랫폼(EU Energy Platform)'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 특히 이 플랫폼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를 공동 구매해 수소를 통한 청정경제 전환을 촉진할 계획
-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핏포55에 제시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40%에서 45%로 높이기로 함. 이를 위해 2030년까지 EU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핏포55에서 제시한 1067GW에서 1236GW로 확대할 방침. 더불어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건물에는 2025년까지, 신축 주거용 건물에는 2029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시. 또, 2030년까지 EU 내 재생 수소 생산량 1000만톤과 수입량 1000만톤을 목표로 하여, 탈탄소화기 어려운 산업 및 운송 분야의 천연가스, 석탄, 석유 사용을 수소로 대체하기로 함

(Europa, 2022.5.18)
http://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22_311

- (스마트 투자) EU는 **리파워EU 계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3000억 유로(400조원)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러시아 화석 연료 수입을 줄이게 되면 매년 1000억 유로(134조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 절약된 자금 일부를 리파워EU에 사용할 계획. 더불어 RRF(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를 개정해 2250억 유로(301조원)를 리파워EU를 위해 운용할 방침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계획으로,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55% 줄이기 위한 정책 패키지

**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고 유럽의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대출 및 보조금 명목으로 총 6725억 유로(901조원)를 집행하기로 EU가 2021년 1년 마련한 계획